

도시주택의 리얼리즘 - 기억, 장소 그리고 한정된 자연-

The Realism of Urban Housing ; Memorial, Place and Restricted Nature

건축사 / 정현화(주).원도시건축

대담자 / 이상해(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

일시 / 2000년 8월 7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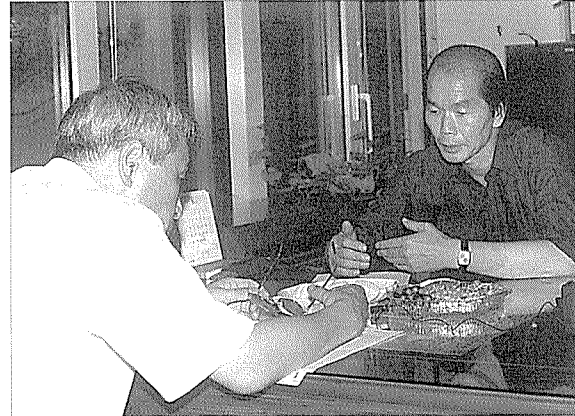
장소 / <필당>내 사랑방

이상해___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현화___주택이란 역시 <가족>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우리네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은 과거에 유교적 대가족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점점 새로운 시대로 바뀌면서 그 구성이나 관계가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주택이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 내재했던 가족관계의 재발견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가는 가족의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가장이 있고, 그 밑에 종속된 구성원들의 관계가 가족의 정의였다면, 앞으로는 가족이 평등한 상태에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면 요즘 유행하는 아파트 평면의 L.D.K 개념은 단란, 가사, 커뮤니케이션의 의미가 있는데, 가장이 그곳을 지키고 있으면 가족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키게하는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도 그런 점을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해___가정이라는 것, 혹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틀 속에서 변화해 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시대가 다름에 따라서 집의 모습도 혹은 집에 담는 내용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우리의 주거의 내용이 잘못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이 집에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화___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주거에 영



대담광경 (왼쪽:이상해, 오른쪽:정현화)

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은 아파트의 등장일 것입니다. 아파트의 기본틀, 예를들면 L.D.K 개념은 일본의 전후의 소주택 정비의 한 방법으로 나온 것인데, 여과없이 우리나라의 아파트주거에 도입되어 천편일률적으로 행해지면서, 가족생활들을 아파트공간에 맞출 수밖에 없는 모순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은 그 가족 특유의 개성적 장소로서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집은 그런 우리 가족의 틀에 맞는 고유의 그릇으로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이상해___다르게 얘기하면 아파트에서 해결이 어려운 주거형식을 단독주택을 통해서 해결하거나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단독주택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현화___아파트의 결점을 어느 정도 느끼고, 다시 주택으로 돌아오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과거의 주거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어떻게 재발견할 것인가, 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상해___그러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단독주택에서의 평면 구성, 형식, 내용 등 평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라는 문제, 이것은 물론 도시내의 필지에 주택이 어떻게 앉혀져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특히 도시형 주택에서 배치방식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내 주거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또 그 속에 실 배치방식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작은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내의 주거, 혹은 도심지 주거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집을 설계하면서 그것과 관련한 생각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정현화 ___ 지난 5월호 건축사지에 글을 쓰면서 '서울 사막의 미야' 라는 말을 썼는데, 그만큼 도시주거가 설 땅이 없어지고, 상황이 나빠졌다고 볼 수 있죠. 최근 여러 잡지에 발표되는 집들이 대개 전원주택인데, 이 집은 도심지에 전형적인 100평 정도의 땅을 갖고있는 도시주택입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에서의 열림과 자연에 대한 견해가 배치계획상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대개 전원주택은 주택이 앞음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열림을 갖고 또 어느 한계까지 자연을 끌어들이느냐는 것이 과제이지만, 도심주택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보상하고, 또 극히 좁은 환경에서 한정된 자연적 요소를 어디까지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배치방식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___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많은 도심형 주택들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마당이 있고, 그 뒤에 건물이 있는 양식입니다. 이런 필당과 같은 배치형식은 결국 그 속에 자연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자연을 새롭게 주거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 두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정이라든지, 방의 배치라든지, 혹은 L.D.K 등과 다른 형식의 배치를 설정하여 실제 생활속에서 방들이 이용되는 형식으로 이어져나가는 것이 이 집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현화 ___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공간구성을 도심지 형태로 제안하고, 구성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기 보다는 어떻게보면 과거의 우리가 갖고 있던 주거형식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유지시키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회동 주택이라든지, 우암리 이씨 종가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안채와 사랑채의 L자형구성이 모여 입구(口) 자형 평면을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마당이 생긴 것 같이, 재발견의 입장에서 평면의 기본구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갖고 있는 장소나 공간은 거기에서 크게 변함없습니다. 그 쪽은 땅이 넓기 때문에 행랑채, 사랑채, 안채, 부엌, 대청 등이 수평적으로 열려있는데 대해서, 이 집은 좁은 땅이므로 안채와 사랑채는 지표층에 배치하고, 건너방을 2층으로, 행랑채를 지하에 배치시키면서 최소한의 마당이란 장소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집은 과거에 있던 주택의 공간구성을 현대적으로 디포메이션 내지는 재발견하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형태적인 제안보다는 우리가 갖고있던 주택의 장소적 기억들을 다시 찾아보고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여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해 ___ 특히 이 집은 안채와 사랑채의 배치형식을 연상시키는 점도 물론 크지만,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지가 평지가 아닌 약간 경사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형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정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현화 ___ 이 대지는 테헤란로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청계산이 내다보이는 양질의 주거지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18미터각의 남사면의 대지로 북쪽으로 2미터정도 고저차가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면 그만인 2미터의 고저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키포인트로 마지막까지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저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만들면서 약간의 높이차가 생겨 사랑방이 누마루처럼 공간적으로 떠오르게 된 점 등입니다.

이상해 ___ 그러니까 약간 높은 사랑채는 앉아서 생활하고, 떨어져있는 부엌에서는 입식으로 생활하게 해서 시선높이를 비슷하게 맞춘 것은 집 전체의 공간이용이나 관계에서도 바닥높이는 다르면서 생활하는 눈의 높이는 비슷하게 한 점이 상당히 편하게 느껴집니다.

정현화 ___ 처음부터 사랑방에는 소파를 놓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랑채의 창을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사랑채에 좌식으로 앉았을 때 가장 편안한 높이에 눈높이를 정했는데, 중정을 통해서 입식의 안채의 시선의 높이와 같게 됐습니다. 중정을 마주보면서 대향하고 있는 두 개의 공간이 상부에서는 차이가 없고, 하부에서 차이가 생겨 시선의 높이가 비슷하게 된 것은 시선의 흐름면에서 잘 정리가 되었다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해___ 평면배치를 전체적으로 보면, 동양 고대의 정전법(井田法)이 한정된 필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집이 전(田)자형에서 출발하면 굉장히 딱딱할 수가 있는데 이 집은 전자형 형식을 취하면서 가운데는 비워놓고, 또 튀어진 부분도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자형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셨는지...

정현화___ 18미터×18미터 땅에다 중간에 열린공간을 둔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수님 말씀대로 정(井)자형 평면이 효율적인데,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의 중정으로서는 너무 폐쇄적인 마당이 아닌가해서 동쪽으로 레벨차가 있는 또 하나의 마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정(井)자 평면을 변화시키면서 거기에 서로 연결되는 슬릿(slit)을 두었습니다. 이 집에는 고저차가 있는 두 개의 마당과 두 개의 2층 테라스를 합해 4개의 마당이 있습니다. 각각의 높이를 달리하여 배치시키면서 정(井)자 평면이지만 내부로 대향하는 두면을 유리로 뚫고, 어떤 벽은 완전히 막고, 또 어떤 벽은 부분적으로 뚫어 집안에 들어와서 마당을 볼 때 전체적으로 정(井)자 평면이라는 형식을 공간적으로 느끼지 못하게 상쇄시키는 장치들을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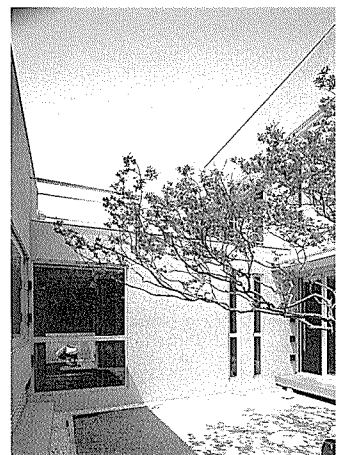
이상해___ 우물정자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우물정자에서 벗어나는 형식이군요. 외부공간형식에서 보면 한옥도 정면에서 보는 것보다 빗겨서 봤을 때 집이 겹쳐지면서 그 사이로 하늘도 보이는 형식인데, 이 집도 현관에서부터 그런 형식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집 전체가 한번 보이고, 그러면서 공간이 열려지는 소위 공간들의 외부공간이 서로 관계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부공간, 외부공간, 내부공간의 관계들이 즉 공간의 층이 반복되면서 엄청난 깊이감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건물이지만 건물의 실제보다 크게 느껴지면서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의 공간을 갖게끔 한 것이 한국주택건축에서 잘 접하지 못했던 해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형식이 한국의 도시주거에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게 해주고, 공간의 특성을 나름대로 느끼게 해주는 의미에서 설계과정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현화___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원래 출발은 굉장히 합리적인 디멘션(dimension)에 충실한 집이어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각 실의 크기, 폭, 오행의 비등 우물정자 평면을 가지면서도 각각의 방들의 크기가 우물정자의 스케어로 느껴지지 않게, 어떤 방은 길고 그 긴 방들

이 마주보고, 또 어떤 방은 그것을 다시 분절해서 두 개의 방으로 나는 부분 등이 있습니다. 18미터각의 땅에서 외형적인 조형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간적으로 그러한 디멘션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택으로서의 개성과 리듬을 찾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 마당들이라든지, 마당사이의 관입이라든지, 마당에 서있는 한그루 나무, 나무가 보이는 대향의 유리창, 창과 창이 마주보게 하며 실내, 실외로 이어지는 관입을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공간적 레이어들이 서로 맞물리게 하여 사진으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눈으로만 인식 가능한 약간은 복잡한 공간적 레이어들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상해___ 이 집의 특성이 마당, 혹은 마당과 연계되어지는 실내와 마당과의 관계, 그리고 마당이 또 다른 마당으로 튀어지면서 연결되고, 혹은 마당에 있는 나무 한그루가 집 전체로(내부든 외부든)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주택에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결국 이 집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입면적인 형태를 의식해서 설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집들이 가지고 있는 방의 크기라든지 스케일은 고려되었겠지만, 길에서 지나가면서 보아도 이 집은 일상적인 집같은 형상 혹은 형태가 없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앞으로 우리의 도심형주택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의 제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화___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편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하다는 것은 예를들어 생활면, 설비적, 기능적으로 편안함이 필요하지만, 주택이기 때문에 공간적,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 살아도 싫증이 나지 않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적극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형태를 위한 파사드디자인이나 디테일디자인에는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자인이나 디테일을 안쓰면 안 쓸수록 좋은 집이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주택은 고유의 분위기가 더 중요한데 설계당시에 제작해본 모델에서는 그런 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주택으로서의 편안한 분위기관 살아가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겠죠. 이 집의 디테일은 특별한 디테일 없이 소위 말하는 표준디테일만으로서 거의 마감되었습니다.

이상해___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축적 처리 방식에 있어서 건전한 혹은 건설한 방식을 채택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소위 좋은 건축, 좋은 공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건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집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집은 주택에 있어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화___여태까지 건축을 공부해 오면서 디자인되지 않은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여태까지 해왔던 작품중에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건축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아무튼 중성이라는 방식은 병원이라든지 연수원 등 여러 작품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이 주택에서는 마당의 여백을 통한 공간의 질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해___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주택들, 혹은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실의 관계들이 상당히 이건 아닌데 하면서 구체적으로 제안도 못하는 것들이 많았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집에서의 식당, 사랑방 등을 설계하면서 생각하셨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정현화___현대의 가정이나 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커뮤니케이션의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최대한도로 지켜지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로서 과거에 대청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었던듯이, 식당이 가운데 온다는 것보다도 식사를 핑계로 하여 모든 가족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중심적인 영역으로 와줘야 되겠다는 것이죠. 대부분 식당이라고 말하는데, 식당이라고 하기보다도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무목적공간 또

는 불확정적공간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대청이라는 장소적 의미를 재생시켜 불편했던 것을 현대적인 방법과 설비로 바꾸어 편리하게 하면서 주부의 영역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방의 공간은 D.K에서 분리하여 완전히 별개의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로 규정시켰습니다. 또한 중심이 되는 공간을 거치지 않으면 각자의 개인공간으로 갈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층의 애들방은 보통의 공부방보다 넓게 만들어 거기에서 공부하고 자고 또 친구가 왔을 때 개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그 방에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하는 커뮤니케이션 장소가 너무 열려있는데 대한 보상 이죠.

이상해___옛날에 없던 주거형식 중에 하나가 요즘 얘기하는 거실인데, 상당부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계를 통해서 거실을 과감히 배제하고 사랑방을 만들었고, 옛날 대청적 성격을 띠는 식당, 그리고 애들방도 문만 열고 들어가면 자기공간이 되는 아파트 침실형식과는 전혀 다른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기존의 우리 주거에서 특히 최근의 살림집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해결한 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집에서는 모든 공간들이 시각적으로 띄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띄어 있으면서도 각각의 실들은 또 자기의 고유한 위치에 독립되게 놓여진 형식이 이 집의 특색으로 보입니다.

정현화___각각의 방의 위치는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면서 빛, 소리 등의 통로는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서로 긴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소리가 1,2층의 오픈 스페이스를 통하여 사랑채에서 2층의 방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커뮤니케이션은 잘 소통되고 있습니다. 통로 축의 한가운데에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을 매개로 하여 어느방에서나 시각적으로 연결시키려 하였습니다.

이상해___다르게 표현하자면 움직임이 다



보인다는 것인데, 특히 자녀들에게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현화___ 서로 다 보인다는 것은 적당한 레벨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불편함보다는 오히려 아이들 방에서 사랑채를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 집안에서의 외로움이나 소외감, 또는 공포심 등을 해소시키는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해___ 이 집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핵심요소가 마당에 있는 배롱나무인 것 같습니다. 배롱나무가 집의 모든 생활공간 혹은 계절의 변화, 기후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당시에 마당에 나무 한그루를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실제로 집이 지어지고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나무의 변화를 보는 느낌은 상당히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정현화___ 건축가가 자기 집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행복한 경험일 것입니다. 이 집을 완성하고 이 집이 저한테 건축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는 부분이 많다는 점 때문입니다. 건축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실제로 마당에 있는 한그루의 배롱나무는 이 집에서 굉장한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대화도 엮어가지만, 나무가 있는 곳은 옥외공간인데 옥내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며, 나무가 가족의 일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마당쪽의 벽은 전부 장식이 없는 열림과 닫힘만이 있는 사각형의 공간인데, 이 한그루의 나무조차 없다면 대단히 삭막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백의 마당이 사색의 여지를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주택의 비움이라는 것은 비움 그 자체보다도 가족들에게 리듬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나가 더 중요했습니다. 외부에서는 배롱나무, 내부에서는 네모 반듯한 공간에 리듬감을 준 계단실의 모빌 등 2개의 오브제였습니다. 이 집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눈을 때, 비올 때, 배롱나무가 꽃피었을 때,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을 때 등 새벽에서 밤까지 느끼는 시간적 변화일 것입니다. 6미터각의 마당공간이 이렇게 풍경을 바꾸어주며, 시간의 변화를 그대로 느끼게 해 주는 장치가 될지 몰랐습니다. 설계하면서 입면도, 재료, 디테일 등을 열심히 생각하지만, 그런 장치로서의 건축보다도 오히려 여기 살면서 느끼는 것들, 물을 준만큼 꽃을 피우고, 꽃이 피면 참새, 나비, 벌레들이 날아오는 등, 자연의 변화로 화답해오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의 형태나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수적인 존재 또는 상황이 주택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해___ 그것이 건축의 부수적인 존재라기 보다는 건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해야 하는데 많은 건축가들이 그것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닐까요?

정현화___ 예, 그렇습니다. 현대주택에서 그러한 부수적인 존재가 주택으로서의 내력을 가꾸어 가는 기본적인 요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수적 존재에 때가 묻어가는 것들을 소중히 할 때 주거에 대한 전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해___ 그런데 이 집이 현재 새집으로써 사람들에게 주는 공간의 신선함도 있지만, 또 시간이 흘러 때가 묻고, 집을 가꾸어가면서 쌓인 연륜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건축사지에서 10년 뒤에 다시 한 번 취재해 볼만한 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롱나무와의 관계를 앞서 말씀하셨지만, 설계에 고려하지 않았던 의외의 현상들도 보입니까?

정현화___ 또 한가지 이 집이 저를 공부시켜 주는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들어 빛을 어떻게 끌어들이는 등 어느 정도는 계산적인 잣대로 모든 건축가들은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의외의 장면들이 시간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감동적으로 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게 바로 자연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집에서도 빛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림자, 중정하늘에 수십마리의 잠자리가 날아 다니는 풍경, 흘러가는 구름, 떨어진 꽃잎 등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현관에 들어오면 제일먼저 보는 것이 한정시킨 하늘입니다. 하늘이 갈 때 한번도 없습니다. 건축가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자연적인 것들의 스스로의 연출>이 감동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곤 합니다. 도시주택설계에서 그 한정된 자연적인 것을 소중히 찾아내는 노력이 전원주택설계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모미가 아닌가 생



각합니다.

이상해___ 도시에서 특히 아파트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공간들, 혹은 자연과 접하는 방식 등등이 이 집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사 후 가족간의 생활의 변화는 어느 것입니까

정현화___ 먼저 둘째딸애기부터 하면, 아파트에 살때는 집에 돌아오면 단지 집에 왔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 집에 와서는 '돌아와서 내가 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있을 때는 많은 시간 TV리모콘을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고무신 신고 마당에 나가 흙을 밟고 다니며 새로운 생활의 리듬을 찾아내곤 합니다. 또 주부의 입장에서는 주부의 불확정적 영역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스스로 발견해냅니다. 단순한 식탁이 아니고 식탁이 놓여있는 공간과 안방과의 영역을 묶어, 갇힌 안채라기 보다는 열린 안채로서 생각하고 친구를 초대하는 횡수가 많게되었죠. 어떻게 보면 싸롱화 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상해___ 이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 집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집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지는 않습니까?

정현화___ 이 집은 외부에서 보면 흔히 보는 도시형 입구자 평면의 주택으로 모더니즘적 박스형의 집이라는 정도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내부를 본 일반인들한테 꽤 호평을 받았습니. 현관에 들어오는 순간, 아! 라는 감탄사적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간의 오버랩이라든지, 한그루의 나무라든지, 여백의 마당이라든지를 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은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어가고 있는 주거에 대한 기억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칸곡자 집, 입구자형의 평면집들은 흔히들 살아왔던 우리 주거에 대한 원초적인 기억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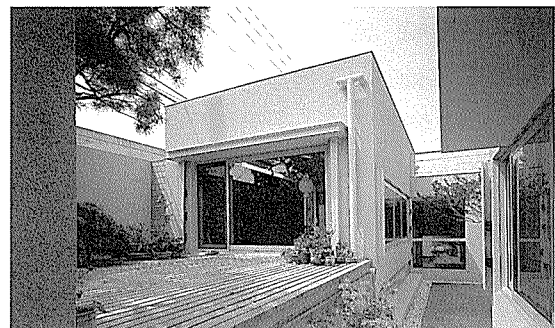
이상해___ 과거와 연관지어서 볼 때 잊어버렸던 기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또 현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당연하게 생활 속의 한 부분이 돼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 인간들의 감성적인 것 등등인데, 도시 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집은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화___ 어떻게 보면 그런 주거에 대한 기억을 되돌리는 것은 건축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의 역사 속에서 주택이란 누가 발명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편안하게 그러한 기억들을 재발견해서 공간적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능하면 전원주택을 포함한 주택에서 뿐만아니라 아파트에서도 잊었던 주거에 대한 기억은 계속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에서도 디멘션이라든지, 격이라든지 우리가 잊었던 주거의 기억들을 찾으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가지 현관의 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현관의 높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도 과거에는 툇돌을 밟고 마루에 올랐는데, 지금 아파트에서 15cm의 패널티팅 두께가 우리 현관의 턱을 규정하는 높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라는 것은 과거 우리의 현관턱의 높이와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상해___ 이 집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얼른 흘려버리면 못느낄 것인데, 유심히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현관옆의 화장실 등 ...

정현화___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화장실도 어떻게 보면 손님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아파트는 물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손님용 화장실이 별도로 없고, 목욕탕에 있는 양변기가 고작입니다. 서양의 비즈니스 호텔의 목욕탕타일이 어느새 아파트의 화장실이 되어버리고, 주거의 전형적인 욕실형으로 정착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욕실만큼 가족의 프라이빗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손님들한테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채에 붙어서 독립된 손님용 화장실을 두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이런 것들이 주거에 있어서의 격의 재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해___ 화장실에 가보면 소변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집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현화___ 그런 것들이 건축의 형태면에서는 별로 중요한 의미는 없겠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특히 주택에서 중요한 생각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자체가 주택에 있어서 디테일 설계라고 봅니다. 디테일이라고 해서 화려한 재료와의 만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다는 그런 잊혀가는 컴포넌트들을 재발견하는 자체가 디테일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해___ 그런측면에서 방의 크기, 폭, 길이 그 다음에 현관에 들어오면서 식당쪽으로 가는 길, 안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창호부분 등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정현화___ 사랑방을 예로들면 4.5미터×7.6미터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옥외공간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종방향으로 테라스를 건너서 벽까지 거의 12미터정도 되는 방이고, 횡방향으로 보면 중정, 식당까지 포함해서 15미터정도의 크기로 느끼게 됩니다. 이 방 크기를 아무도 4.5미터×7.6미터에 한정시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방뿐만 아니라 식당, 안방 등 옥내외로 시야가 터져 있다는 것이 그런 효과를 갖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집에서는 하나의 방 자체의 면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자체의 크기보다 관련된 공간의 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해___ 오히려 방자체의 독립적인 성격을 갖고 싶을 때는 물론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느방향으로 터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확대되는 부분이 이 집이 각각 독립적인 혹은 방향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안방도 그렇고 사랑채도 그렇고...

정현화___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면적에 대해, 시각적인 면적, 느낌으로서의 면적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이상해___ 재료는 어떻게 됩니까?

정현화___ 노출콘크리트로 해도 관촬을 정도로 벽돌을 한 장도 안 쓴 콘크리트조의 집입니다. 단열은 외단열로 되어있습니다. 가장 집이 물성을 안 갖는 재료, 처음에는 노출콘크리트에 흰페인트를 칠할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좋은 재료를 발견해서 실리콘계 뿔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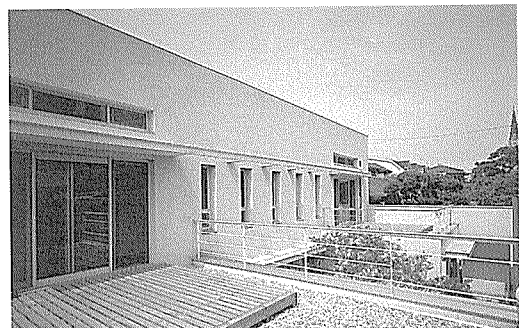
했습니다. 실리콘계열의 재료는 발수성분이 있고, 오염에 강하고, 물을 차단하는 장점이 있어 현재까지 누수나 오염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외벽을 흰색으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있었으므로, 그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충족해 줄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흰 집이니까 물에 의한 오염이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후레싱을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이상해___ 이 집을 지을 때 하나의 안을 가지고 설계하셨습니까?

정현화___ 생각은 초기부터 결과물과 유사한 생각에서 출발하였고, 컴퓨터 화면에서 캐드스케치로 계획을 했습니다. 합리적인 디멘션을 찾다보니까 컴퓨터화면 상에는 많은 계획의 궤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의 생각은 하나의 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채는 처음부터 정해졌고, 식사를 하는 공간과 안방의 목욕실, 지하의 스튜디오와의 관계는 생각이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뀌지 않은 것은 사랑채와 2층 아이들방입니다. 그리고 중정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면을 전부 유리로 뚫었는데, 결국은 식사하는 공간인 남측창과 사랑채의 북측창만 적극적으로 뚫고, 안방 쪽은 서향 빛이 드니까 과감하게 막았고, 현관 쪽은 중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뚫었습니다. 중정의 벽에 대한 변화하는 생각도 컴퓨터 스케치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해___ 시공하면서 예산에 관한 문제라든가, 현실적으로 재료나 집기가 예산때문에 생각은 있었는데 실현되지 못한 것은 없었나요?

정현화___ 실제 공사비는 저렴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구조, 사시, 유리, 단열 등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공사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사비를 줄인 부분의 예를 들면 욕조나 변기 등은 소모품으로 생각해



서 디자인이 통일된 저렴한 것으로 사용했고, 부엌의 싱크와 가구, 붙박이장, 테이블 등은 스케치를 해서 직접 공장주 문제작을 통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추위에도 난방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콘크리트벽식구조에 외단열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여름엔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선풍기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어컨없이 생활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고 있는데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상해___어떻게 보면 이 집은 거부장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대청적 성격을 띠는 식사하는 공간, 즉 주방공간이 이 집의 중심인 것 같습니다.

정현화___그렸습니다. 이 집은 대청처럼 쓰이는 다목적 공간에 불이 켜져있을 때 이 집에는 커뮤니티 케이션이 살아있고, 가족의 대화가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각자의 프라이빗한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는 일종의 시그널인 셈이죠.

이상해___그것은 이 집이 주는 일종의 공간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장치로서 상당히 중요한 상징성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을 설계한 건축사도 물론 가족의 일원이지만 실제 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 또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현화선생 부인과 두 딸과의 대화를 하였다. <편집자주>

이상해___아파트에서 살 때와 이곳에서 생활의 차이점이 있다면...

둘째딸___아파트에서는 하늘에 더 가깝게 산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땅에 접하여 땅의 온기를 느끼면서 생활하니까 심신건강에 좋고 애정이 갑니다.

첫째딸___아파트는 주어진 똑같은 형태 속에 들어가서 맞추어 사는 것이지만, 이 집은 건축가인 아버지가 아빠입장에서 우리가족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해___아파트에 있을 때보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부인___예, 친구들이 놀러와서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있었으면 아마 사랑방을 싸롱으로 개방했을 겁니다. 아파트에 살았을 때는 손님이 오는 것을 약간 꺼려했었는데, 이 집에 이사와서는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이상해___아파트보다 손이 더 가는 부분도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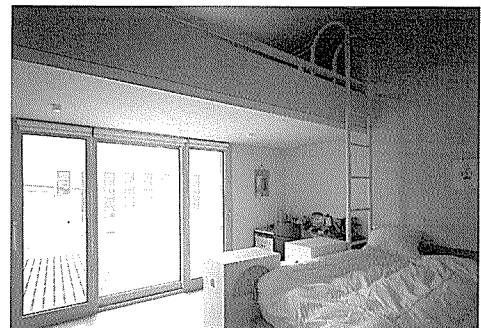
부인___아무래도 좋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잘 관리해야죠. 지면하고 가깝다보니 쉽게 더러워지는 것도 있기는 해요. 감수해야죠.

이상해___이 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좋습니까?

부인___부엌을 중심으로 한 공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공간과 사랑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인 간섭이 없이 시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단독주택으로서 나름대로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집을 지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또 주부로서 이 집을 유지관리하는데 혼자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연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파트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해___사모님같은 경우는 어릴적에 땅을 밟고 단독주택에서 사셨겠지만, 아파트문화가 만연한 요즘에 두 딸님에게는 이 집이 굉장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밟고 산다는 것이 행운이 아닐까요?

둘째딸___마당에 나무가 있고, 나무가 계절마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벌레가 오는 것을 볼 수 있니까 주택에서 땅을 밟고 살면 사람이 더 여유로워지고 편



안해지는 것 같아요. 도시나 학교생활에서 못느꼈던 것을 집에 와서는 나무 그림자나, 햇살이 들어오는 것을 보는 등 작지만 나만의 자연을 직접 접하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상해___ 이사오신 지 아직 1년이 안됐는데, 어느 때가 제일 좋은가요?

부인___ 처음에 이집에 이사와서 감격한 것은 서울 하늘에도 별들이 있구나를 새삼 느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자갈 깔린 정원을 한바퀴 돌아보곤 합니다. 그때 풀냄새와 흙냄새가 굉장히 싱그럽게 다가와서 물을 안줄 수 없게 만듭니다.

정현화___ 가족 모두가 이 집에 이사오고 나서 자기 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고,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지요.

이상해___ 가족들끼리도 이야기 거리가 많아졌을 것 같아요.

정현화___ 손바닥만한 도심지 땅에서 일부러 찾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그냥 우리 생활속에 들어오게 되었죠. 예를들면 눈이 온다든지, 비가 내릴 때 지표면에 떨어지는 정경, 낙수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름 모를 풀꽃이 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도심지 가운데의 작은 여유 공간이지만 지표면의 생활로 가족들이 돌아온 느낌입니다. 실제 이 집을 시공한 사람은 본격적인 단독주택을 지어보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공자도 좋은 생각과 협의가 있으면 여기까지 가능하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해___ 그것이 큰 성과라고 봅니다. 이 집이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한테도 집을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더라고 가르쳐 줄만 한 것 같아요.

정현화___ 이 집의 시공자는 주택이라는 것을 달리 생각하게 되었고, 공사가 끝나고 여기에서 주택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갑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이 집을 짓고나서 시공자 한 두사람이 집을 구경하러 왔는데 그들이 이 집을 지은 시공자가 누구냐고 물었지, 이 집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고는 묻지를 않았을 때는 섭섭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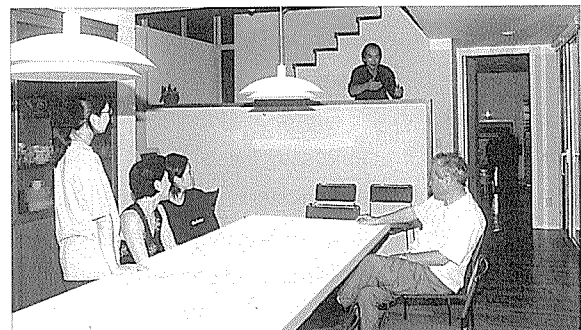
이상해___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업자들이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설계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부인___ 단순하면서도 거추장스러운 것이 없고, 옆집의 정원까지 끌어들이는 정도의 대지활용 등 어쨌든 주부로서 불편이 없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첫째딸___ 방이 층고가 높아서 시원한 느낌이 있고, 잡동사니를 넣을 수 있는 다락방이 있어 좋아요. 그리고 방만한 크기의 테라스가 있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항상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좋아요.

정현화___ 보통 도심지 주택에서 이 정도의 테라스는 거의 갖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된 것 같습니다. 만약 2층 테라스 앞이 어둡고 막혀 있다면 나가기 싫을텐데, 중정을 끼고 앞이 밝게 띄어져 있고 후로링으로 잘 마감을 해주었더니 친근한 장소로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이상해___ 테라스에 나가도 집의 한부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자주 나가게 되지요. 이 집을 보면서 황량한 사막에서 한줄기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삭막해져가는 도심지 주거에서 하나의 좋은 예가 이 집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바람직한 도시내 주거양식을 찾아가는 작업이 계속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대담에 응해주신 정선생님과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가족과의 대담광경